

News

가계부채 후속대책...상환능력별 대출(DSR) 조기 시행

KBS

금융위원회, 26일 대출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 실효성을 키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4월 관리방안 이후 6개월만의 후속대책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이던 DSR 규제 대상을 빨리 늘려나가기로... 2금융권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도 내년 1월부터 50%로 10%p 낮아져...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중점 관리해야”

조선비즈

고승범 금융위원장, "민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200%가 넘어... 기업부채도 중요하게 관리 필요"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중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보다 높은 111% 수준... "아직까진 큰 문제 없어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 그 이후 구조조정 할 것"

이달 내 모든 은행 전세대출 '상승분만, 잔금일 전' 규제 시행

연합뉴스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세 은행,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전세대출 규제 도입 논의... 늦어도 이달 안에 모든 은행이 규제 도입하기로 결정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당국이나 업계가 무리하게 막지 않는 분위기...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중단키로...

신한, 분기배당 스타트..금융주 저평가 끝낼까

이데일리

신한금융지주, 올해 3분기 실적발표하며 분기배당 발표...주당 260원으로 총 1,388억 5,955만원 규모... 국내 금융지주사 중 분기배당 하기로 처음
다른 금융지주들도 분기배당을 긍정적으로 검토... 정관 변경이나 이사회 결의 등의 과정이 있어 올해 쉽지 않아도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

“당국 규제 피했다”... 메트라이프, 달러보험 판매할 ‘은행’ 또 찾는다

머니S

메트라이프생명, 달러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다수의 은행들과 협상에 나서... 2~3곳 은행들과의 협상 진행 중... 은행과 협업으로 달러보험 판매 증대와 방카슈랑스 비중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 달러보험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과다 수수료 억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예정

대출여력 바닥난 2금융권, 금리 인상 '속도'... '풍선효과' 막자

뉴스1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 주요 금융사들도 속속 대출 금리 인상... 대출수요가 물리는 풍선효과 차단 목적... 대출 가수요도 예상
삼성생명의 9월 신용대출 평균 취급 금리 연 8.30%, 교보생명 9.44%, 한화생명 9.3%...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 때문

KB증권, 3억 달러 외화채권 발행

파이낸셜뉴스

KB증권, 3억 달러 규모의 달러채권 발행에 성공... KB증권의 첫 외화채권 발행... 5년 만기 3억 달러 규모로 미국 5년물 국채금리 95bp 가산 스프레드 더해 발행
투자자 주문은 총 66개 기관으로부터 유효수요 기준으로 14억 6,000만 달러 기록... 올해 프라이싱된 국내증권사 발행 중 최대규모 달성

9월 기업 주식·회사채 발행액 19조6243억...전월비 1.4% ↑

데일리안

9월 주식, 회사채 총 발행실적 19조 6,243억원으로 집계... 전월 대비 1.4% 증가한 규모... 주식이 2조 349억원, 회사채가 17조 5,894억원 발행
ABS는 지난달 9,974억원 규모로 발행되어 전월 대비 47.3% 감소... CP와 단기사채 발행실적은 137조 2,407억원으로 전월 대비 9.9%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